제2강 플라톤: 카오스/코스모스와 시간

(1교시)

3. 플라톤이 본 시간의 탄생

이제 위대한 철학자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시간에 관해 말한 곳은 주로 『티마이오스』(박종현 / 김영균 공역, 서광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얼마 되지 않은 지면 37c-39e에 개진되어 있습니다. 지면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내용은 결코 만만찮습니다. 앞서 시간의 세 양상에 관한 이야기는 플라톤의 시간론에서 이미 상당 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티마이오스』는 플라톤의 우주론을 담고 있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플라톤은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실존 인물인지 어떤지 알 수 없는, 어쨌든 천문학에 밝은 인물을 내세워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밝힙니다. 우주(kosmos)를 만드는 데에 우주를 만든 신으로 데미우르고스(Demiourgos)가 있고, 데미우르고스가 우주를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기로 하는 이상 본(paradeigma)으로 삼을 수 있는 '언제나 같은 상태로 있는 것' 즉 영원한 존재(aidion ousia)인 이데아가 있고, 데미우르고스가 우주를 만드는 재료를 만들기 위한 원 재료인 필연(ananke)라고 불리기도 하는 생성(genesis)이 있고, 또 생성의 유모라고 불리는 공간(chora)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 공간, 생성이 있고, 이 셋이 세 가지로 있으며, 천구(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52d, 역본 147쪽) 필연인 생성은 제멋대로 운동을 하고 있어 전혀 균형이 잡히지 않은 힘들로 가득 차 있고 그저 뒤흔들리는 방식으로 있는데, 이 필연인 생성에게 데미우르고스가 지성으로써 설득하여 질서(taxis)를 부여함으로써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이 우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우주의 몸은 가시적인 것이어서 그 자체 균형과 조화를 간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데미우르고스가 우주의 혼을 만들어 우주의 몸에 집어넣음으로써 우주가 조화롭고 아름답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온 우주는 살아 있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 해와 달 그리고 다섯 개의 행성인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모두 신들로 취급되는 것은 그것들이 각기 나름의 질서 정연한 안팎의 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우주의 혼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천체의 운동은 천체의 몸이 운동하는 것이라기보다 천체의 혼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에 관한 이야기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우주를 생기게 한 아버지가 이것이 영원한 신들의 상으로서 생겨나 운동하게 되고 살아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경탄하며 기뻐한 나머지, 그것을 그 본에 대해 한결 더 닮은 것으로 만들어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이 살아 있는 영원한 것이듯이, 그는 이 우주도 그처럼 가능한 한 그런 것이도록 만들어 내려고 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 있는 것의 본성은 영원한 것이어서, 이를 생성된 것에 완전히 부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는 어떤 영원(aion)의 모상(eikon)을 만들 생각을 하고서, 천구에 질서를 잡아 줌과 동시에, 단일성(일자 hen) 속에 머물러 있는 영원의 [모상], 수에 따라 진행하는 영구적인

www.artnstudy.com

모상(aionion eikon)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chronos)이라 이름 지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구가 생겨나기 전에는 낮과 밤 그리고 연월이 없었는데, 그것이 구성되는 것과 동시에 그가 그것들의 탄생을 궁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 모두는 시간의 부분이며, '있었음'[과거]과 '있을 것임'[미래]은 생겨난 시간의 종류들인데, 바로 이것들을 우리는 부지중에 영원한 존재에 잘못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야 물론 우리가 '있었다'거나 '있다' 그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지만 영원한 존재에는 '있다'(esti)만이 참된 표현으로서 적합하고 '있었다'와 '있을 것이다'는 시간 안에서 진행되는 생성에 대해서나 말하게 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37c-38a, 역본 102-103쪽)
이 글을 보면, 플라톤은 일단 시간을 낮과 밤 그리고 연월 등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 즉 셀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시간의 부분들이라 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시간의 종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말하자면 시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데미우르고스가 시간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자못 흥미롭습니다. 천체 내지는 우주를 만들어 놓고 보니 천체가 신들의 상으로 나타나 살아 있는 것처럼 보여 너무 좋은데 뭔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본인 영원한 존재를 더욱 더 완벽하게 닮게 만들어야 하겠다고 욕심을 냅니다. 생성된 것인 우주만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 생각해서 새롭게 만든 것이 시간이라는 이야깁니다. 시간은 영원한 하나의 존재에 대한 영구적인 모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우주가 영원한 일자인 이데아를 닮을 수 있는 것은 시간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식입니다. 소광희 선생님의 표현에 따라 달리 말하면, "시간은 영원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덧없이 생성, 소멸하는 현상계로 하여금 이데아를 지향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소광희, 217쪽)
플라톤이 내린 시간의 정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수에 따라 진행되는 [영원한 존재인 일자에 대한] 영구적인 모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소광희 선생님은 '수에 따라 진전되는'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적절히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 '수에 따른다'는 것은 시간과 수가 그 본성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의 일반적 특성은 '헤아리고 헤아려진다'는 데 있다. 즉 수는 의식 관련적이다. 그리고 수는 단절과 연속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단절 즉 비약이 없으면 전진할 수가 없고, 연속성이 없으면 헤아림의 기본인 서열이 서지 않는다. 수의 본질은 비연속적 연속성이다. 시간이 헤아려지려면 수와 마찬가지로 단절되면서 동시에 연속되어야 한다. 그것이 밤과 낮, 연월일이다. 수와 시간은 그 본질을 같이 한다."(소광희, 218쪽)

플라톤이 기하학과 수학을 중시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실상 『티마이오스』에서 우주의 생성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대목을 보면 우주의 몸을 만드는 재료인 흙, 불, 물, 공기는 원재료인 기하학적인 도형들에서 생겨나고, 우주의 혼은 수학적인 비례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 계열이 지닌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통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1, 2, 3, 4 등으로 이어지는 자연수의 계열은 비연속적입니다. 그 사이에 확실한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리수와 무리수를 포함한 실수 전체를 놓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수의 계열은 그 자체로 보면 완전한 지속으로서 그 사이에 불연속의 간극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수 중 어느 하나의 수를 지목할 수 있습니다. 자연수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일정한 수를 지목하는 순간 그 수는 완전한 지속에서 빠져나와 독립성을

www.artnstudy.com

띠게 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이러한 불연속적인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르그송은 순수 지속을 수로 분할해서 양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하나의 수와 무한소의 간극을 지닌 바로 그 옆의 일정한 하나의 수 사이의 무한을 실수의 연속이 포섭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연속체로서의 실수, 즉 지속과 완전히 닮은 실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오히려 단위 개념입니다. 수의 체계에서는 단위가 필수적입니다. 시간 지속을 단위로 분할한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학에서도 무한 개념이 있고, 그 무한은 결코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한 분의 1과 무한 분의 10000은 크기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플라톤의 시간 개념은 영원을 닮아 있으면서 동시에 연월일시분초 등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른바 수학적으로 양화될 수 있는 이중배리적인 측면을 지닌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영원'을 닮은 점에서는 양화될 수 없는 지속을, 하지만 '닮아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수를 따라 진행되고 따라서 양화될 수 있는 시간을 말한 셈입니다.

4.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매개인 시간

플라톤의 시간론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끌고 가 코스모스를 영원한 일자에 최대한 닮도록 만드는 데 시간이 필수적이라 본 것입니다. 요컨대 카오스에서 최대로 완전한 코스모스로 나아가는 데 시간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시간이야말로 생성 즉 발생과 소멸을 거듭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극복하고 영원의 상태로 올라가고자 노력합니다. 시간을 극복하는 자, 시간을 통해 생겨나는 탄생과 죽음을 극복하는 자야말로 위대한 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발생과 소멸의 원인은 오히려 필연이라 불리는 생성의 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시간은 영원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인 양 말하는 셈입니다. 천체를 지배하는 시간은 영구적인 반복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플라톤은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원운동을 하는 같음(동일성)의 궤도와 대각선으로 왼쪽으로 원운동을 하는 다름(타자성)의 궤도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동일성과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회전 운동에 주도권이 있다고 말합니다.(36c, 역본 98-9쪽 참조.) 말하자면, 시간에 의거해 일어나는 천체 운동과 천체 운동을 통해 드러나는 시간을 고려함으로써 영원한 일자인 이데아 세계를 가늠할 수 있고 거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식으로 말하는 셈입니다.
반복적인 원 운동으로서의 시간은 플라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윤회설과 무관한 것 같지 않습니다. 히브리적인 직선적 시간관과 대립되는 그리스적인 순환적인 시간관 역시 이러한 플라톤적인 시간관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중요한 것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나아가는 데 시간이 개입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말하면, 카오스적인 인생을 벗어나 코스모스적인 인생을 되찾는 데에는 시간을 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은 도대체 어떤 시간인가요? 발생과 소멸의 덧없는 계속을 벗어나 영원한 영역으로 비약해 가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이에 관해서는 엘리아데의 시간관과 니체의 영겁회귀의 시간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시간관을 들여다봄으로써 플라톤에서 연원하는 영원을 향한 시간을 더욱 실감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www.artnstudy.com